지역 대형 하도급 외지업체 '싹쓸이'

전남, 올 시행액 1조5천억 중 1조1천억(78%) 타지역 업체 수주

업계 "하도급 참여 비중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절실"

광주·전남 등 지방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가운데 외지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 내 각종 하도급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 들어 외지업체가 지역내 대형공사 5곳 중 4곳을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올해 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들의 지역 내 대형 관급공사 하도급액은 총 2천45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전남에서 발주된 44건의 대형 공사 하도급액(1조4천970억원)의 16.4% 수준으로,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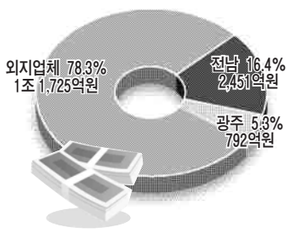
반면 올해 외지업체들의 지역 관급공사 수주액은 1조1천725억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전남지역 대형 공사의 5분의 4를 독식한 셈이다.

이처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이 낮은 것은 대형공사를 낙찰받은 외지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 물량 대부분을 자회사나 자사 연고지의 협력업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지 업체들의 이같은 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은 물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남도회 2천412개 회원사들 가운데 78.8%(1천901개)가 평균 수주실적(10억4천만원)을 밑돌았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역내 대형 공사 마저 대부분 외지업체에 빼앗기면서 업계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전남 지역 대형공사 하도급 현황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만이라도 지역 업체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상원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관내 대형 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시공경험의 축적 부족으로 인한 참여배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회는 지난 14일 나주에서 '발주관서 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의무화 등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남도회는 이날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내 대형 공사 발주시 분담시공이 가능한 전문공사는 공동도급 형태로 발주하고, 전문성 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적극 활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또 3억원 미만의 전문성 복합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업으로 발주하는 등 전문건설업 회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당도 '맷돌호박'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이 16일 일반 호박보다 속이 더 노랗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맷돌호박'을 선보였다. '맷돌호박'은 호박죽과 호박즙용으로 많이 팔린다. 판매가격은 1통에 5천원. 〈광주신세계 제공〉

광양제철 이형준씨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광양제철소 EIC(전기제어) 계측정비과에 근무하는 이형준(49·사진)씨가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씨는 지난 1985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후 이듬해 광양제철소가 온도, 저항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씨는 또 2001년 EIC기술부가 전기 등 6개 분야 67개 항목에서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인정을 획득하고, 교정업무 선진화를 위해 국가표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부가세 1400억 추가 감세 추진

정부가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도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최소 1천4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을 계속 외면할 경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각종 감세조치의 원활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감세조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율인하가 아닌 조세감면제도 일몰 연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국회 조율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의 부가세율 30% 인하 주장과 관련해 세율인하 대신 부가세 관련 3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남권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

11개 기업지원기관 21~22일 광주과기원서

광주시, 전남·북 등 서남권 지역의 11개 기업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오는 21~2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층에서 '2008 서남권 기술이전·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서남권 지역 광주·전남·전북테크노파크(기술이전센터)와 광주·순천·전남·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광기술원, 광주과기원, 조선대학교 및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한다.

투자유치설명회는 3개 테크노파크(기술이전센터)와 4개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해 16개 지역 우수기업에게 투자유치의 장을 열어주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쏘울' 패션을 입다

기아자동차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의상 무늬로 외관을 장식한 차량을 백화점에 선보인다. 〈사진〉

기아차는 이달 23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 야외 특별전시장에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갭(GAP)의 아가일 체크 패턴을 외관에 적용한 크로스오버차량(CUV) '쏘울(SOUL)' 3대를 전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가일 체크 패턴은 마름모나 다이아몬드 모양의 체크무늬를 지칭하는 말로 갭이 올겨울 신상품에 삽입한 무늬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노란색 아가일 체크무늬가 씌워진 쏘울 1대와 파란색과 분홍색 아가일 패턴으로 장식한 쏘울 2대가 백화점 고객들에게 소개된다.

전시회장에서는 갭의 겨울 의상을 입은 모델들이 벌이는 패션쇼와 관람객들 중 1명을 추첨해 쏘울 1대를 증정하는 경품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방 SOC 보수공사 1조4천억 투입

당초 예산보다 3천억 늘려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내년에 지역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지방의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보수공사에 당초 예산보다 3천200억원 늘어난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 지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지방 철도역사의 노약자·장애인 승강시설 개선사업이 97개 역사에서 마무리돼 철도이용이 쉬워지고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는 선형개선 등으로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며 지방 118곳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이 개량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 2009년 소규모 SOC사업 개보수 예산을 당초 1조1천290억원에서 3천200억원 늘어난 1조4천490억원으로 책정, 지방 경기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올해 관련예산 1조1억원과 비교해도 4천489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SOC투자는 1조원을 투입하면 고용이 1만8천명 증가하고 생산은 2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방의 공공부문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건당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사업 참여자가 해당지역 업체들로 제한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앤미, 친환경 불연보드 출시

인테리어 전문업체 지앤미(g앤美)는 최근 천연 광물질인 마그네슘과 무기염료를 주원료로 한 'MgO불연보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일명 '마그네슘 보드'로 일컬어지며, 기존 석고보드 위주의 건축마감재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화재시 유해가스 발생이 없고, 불연성 및 방화성이 탁월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시공시에도 방염필름이나 페인트 공정 없이 '마그네슘 보드' 만으로 마감이 완료돼 시공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 제품은 기존 석고보드에 비해 5배 이상 강도가 높고, 칼이나 톱 등으로 절단이 가능해 공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 문의 062-234-9500.

지앤미 광주사업부 이용석 본부장은 "'마그네슘 보드'는 소재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병원이나 학교, 주택 등에서 널리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